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5호 【루계 제25023호】 주체104(2015)년 9월 2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

조선혁명의 력사는 신념으로 개척되고 신념으로 승리해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온 나라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련일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국에로의 귀환 15돐을 맞이하고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변함없는 신념과 완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워 승리한 참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뜨겁게 느끼고있으며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고 오직 우리 당만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꿋꿋이 걸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곧 신념이며 신념이 없으면 혁명가가 될수 없습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습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것은 혁명동지들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 숭고한 도덕의리가 안아온 세계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동지애는 혁명동지를 위해서라면 하루밤에도 천리길을 걷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이 세상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십년간 철창속에서 모진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63명에 달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한날한시에 사회주의조국으로 돌아온것은 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헌신의 로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국에로의 귀환을 격정속에 목격하며 **김정일**장군님의 품, 조선로동당의 품이야말로 혁명전사들의 삶과 위훈을 영원히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위대한 어머니품이라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15년간은 비전향장기수들이 꿈결에도 그리고그리던 위대한 태양의 품, 조국의 품속에서 온갖 행복을 누리며 보낸 잊지 못할 나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지애의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우리 천만군민의 자애로운 친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통일애국투사들의 영광은 더욱 빛나고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시대가 낳은 신념과 의지의 전형으로 높이 평가해주시며 온 나라가 그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도록 해주신분도, 비전향장기수들이 로당익장하여 통일애국투사의 고귀한 삶을 계속 꽃피워나가도록 극진히 보살펴주고계시는분도 우리의 **김정은**동지이시다.

혁명은 곧 신념이고 의지이다. 혁명의 길에는 풍파와 시련이 있기마련이다. 이 준엄한 투쟁의 길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간직해야 한다.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잃지 말아야 하고 철창속에서 생을 마칠지언정 버리지 말아야 하며 불에 타죽을지언정 굽히지 말아야 하는것이 혁명가들의 신념이다.

혁명가의 신념은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전진하고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키워낸 투쟁행정이다. 그 나날에 비전향장기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신념의 강자, 의지의 투사들이 태여났다.

비전향장기수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정의 일념을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한생토록 지켜싸운 투철한 혁명가들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은 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심장속에는 지난날 버림받고 천대받던 자기들을 따뜻이 품에 안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혁명가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은정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었다. 하기에 하늘땅이 열백번 변해도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각오, 절해고도에서도 그 은덕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의리의 마음은 수십년간의 처절한 감옥생활속에서 오히려 천연암반처럼 억세여졌다. 비전향장기수들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중세기적인 악형과 달콤한 회유를 이겨내고 단두대에도 웃으며 올라섬으로써 당과 수령을 믿고 받드는 조선로동당원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것인가 하는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생이 그처럼 아름답고 고결한것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오직 하나의 신념, 위대한 수령님께와 장군님께 충정다하려는 깨끗한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였기때문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애국자들이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밑에서 상가집 개만도 못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설음과 울분속에 살아온 그들은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대전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것은 그들의 가슴속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려는 애국의 열정을 뜨겁게 심어주었다. 그들은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전조선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의 불을 질렀을 때에는 다시는 외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총을 잡고 용약 전선에 달려나갔으며 전후에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한몸바칠 각오를 안고 주저없이 험난한 투쟁의 길에 나섰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비전향장기수들의 사랑과 헌신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심을 모르는 진실하고 고상한것이다. 그들이 지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보람찬 투쟁행로를 계속 이어가고있는것은 꺼질줄 모르는 애국의 신념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최후승리에 대한 락관을 안고 끝까지 싸운 불굴의 투사들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의 굴함없는 옥중투쟁은 조국통일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은 비록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해도 후대들은 반드시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량심의 길을 꿋꿋이 걸었다.

신념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때 가장 공고하고 굳건한것으로 된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뼈를 부시는 모진 고문과 끈질긴 전향공작, 죽음의 위협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완강히 싸워 이긴 힘의 원천은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절대불변의 믿음이였다.

비전향장기수들과 같은 불굴의 혁명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다.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격동적인 시대에 살고있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기어이 건설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지금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이 신념과 의지의 전형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그들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을 의지를 안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비전향장기수들이 지녔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자신들의 신념으로 굳게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깨끗한 충정의 한마음을 지니고 살며 투쟁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시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우리 조국의 존엄이 빛나고 우리 인민의 참된 행복이 꽃펴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며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각오를 안고 충정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선군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함으로써 위대한 룡남산의 맹세, 조선의 맹세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오직 우리 당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순결한 마음으로 당을 믿고 따르며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학생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천겹만겹의 방탄벽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의 리정표이다.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누구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그 리행을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북남선언들을 외면하며 그 리행을 거부하는 반통일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뭉친 조선민족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며 민족의 운명문제, 조국통일문제를 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선군옹호는 성스러운 민족적의무이다.

선군을 떠나 조선반도의 평화도 자주통일도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외세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는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열렬히 받들며 선군으로 마련된 조선반도의 현 긴장완화국면을 공고한 평화와 통일에로 이어나가기 위해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주인은 전체 조선민족이다. 온 겨레는 자기가 사는 모든 곳에서 동족대결정책과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반대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온갖 세력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그에 응당한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강의한 혁명신념과 불굴의 의지의 소유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위대한 당을 따라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만난을 헤치며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최후의 승리는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인 우리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선물승용차보존실이 꾸바대사관에 새로 꾸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선물승용차보존실이 우리 나라 주재 꾸바공화국대사관에 새로 꾸려졌다.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우리 인민과 함께 나아가는 꾸바인민과의 친선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1(1962)년에 꾸바공화국 초대특명전권대사에게 은정어린 승용차를 보내주시였다.

조선과 꾸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관계의 초석을 마련해주시고 꾸바인민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의 세계를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꾸바정부는 1999년 인류공동의 뜻깊은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수령님의 선물승용차를 꾸바대사관에 원상대로 보존하도록 하였다.

꾸바대사관에서는 조선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꾸바정부와 인민의 뜻을 받들어 지금까지 선물승용차를 온갖 성의를 다하여 보존하여왔으며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이 되는 올해에 선물승용차보존실을 새롭게 꾸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선물승용차보존실 개관식이 8월 31일에 있었다.

개관식에는 리수용외무상, 박근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심국룡 외교단사업총국 총국장,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대꾸바대사 라싸로 비고아에게 승용차를 선물로 보내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때로부터 꾸바사람들은 이 선물승용차를 귀중히 보존관리하여왔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훌륭하게 꾸려진 선물승용차보존실은 꾸바와 조선사이의 특별하고도 친근한 친선단결의 상징으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선물승용차가 꾸바대사관에 영원히 보존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의 불패성을 보여주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선물승용차를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룡산청년발전소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룡산청년발전소가 새로 건설되였다.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자체의 힘으로 북창지구에 실리가 큰 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룡산청년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준공식이 1일에 진행되였다.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돌격대원들, 발전소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룡산청년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룡산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운 평안남도의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력자원이 풍부한 평안남도에서 발전소건설에 관심을 돌리며 중소형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일군들이 중소형발전소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나가는 당중앙은 평안남도의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일군들이 발전소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료해하고 발전소의 이름까지 달아주었으며 건설자들이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청년돌격대원들과 화력건설련합기업소, 성천광산, 룡원광산의 로동계급은 50만여㎥의 굴착 및 언제쌓기공사, 수백m에 달하는 물길굴뚫기와 근 3만㎥의 콩크리트치기를 전투적으로 해제껴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북창화력발전건설사업소, 수력설비조립사업소, 평안남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취수구공사와 조압수조건설, 발전기실건설과 송전선공사, 설비조립을 빠른 기간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평안남도의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일군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룡산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강형봉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준공사에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받아안은 감격과 기쁨에 대하여 언급하고 감사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일군들이 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그 열정, 그 기백으로 중소형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발전소관리운영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을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룡남산의 맹세를 대를 이어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학생청년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학생청년들의 맹세모임이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 청년동맹일군들, 학생청년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위성,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현승의, **김일성**종합대학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박성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주체49(1960)년 9월 1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찬란한 미래와 우리 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확고히 담보하는 획기적사변이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력사의 이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전체 청년대학생들의 가슴가슴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 우리 당의 혁명사상의 보물고를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걸출한 령도자로서의 위인적풍모와 자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룡남산에서 다지신 그날의 맹세를 심장에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세기이상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내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강위력한 핵보유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선군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함으로써 위대한 룡남산의 맹세, 조선의 맹세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오직 우리 당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순결한 마음으로 당을 믿고 따르며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학생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천겹만겹의 방탄벽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항일선렬들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하나를 배워도 조선혁명에 쓸모있는 산지식으로 다지며 20대, 30대에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포부를 안고 대학생과학탐구상쟁취운동과 학생과학연구소조활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학생청년들이 조선을 빛내이실 위대한 맹세를 다지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고 영원한 국가주석이십니다.》 김 정 일

무궁토록 휘날리라, 람홍색공화국기발이여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탄생 67돐을 앞두고 있다.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때에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게 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정은 자못 류다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영웅적투쟁으로 일떠세운 위대한 인민의 조국이며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누구나 성스러운 이 부름을 외울 때면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우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되새겨져 눈굽을 적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무궁번영할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길 불같은 일념으로 심장을 끓인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높뛰는 그 고결한 애국충정의 사상감정이 9월의 하늘가에 나붓기는 람홍색공화국기발에 다 담겨져있다.

이 신성한 국기앞에 떳떳하기 위해 조국보위초소와 일터마다에서, 국제경기들과 세계무대에서 애국의 더운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이 땅의 천만군민이 값높은 추억과 긍지속에 람홍색공화국기발을 경건히 우러른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공화국기발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높이 휘날려주신 사회주의조선의 성스러운 국기이다.

지금도 우리 인민, 공화국공민이 있는 곳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의 힘찬 퍼덕임소리에 귀기울이느라면 누구나 명곡 《조국찬가》의 은은한 선률이 들려오는듯싶어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다.

창공높이 휘날리는 우리의 소중한 공화국기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이 조국이라고 불러올수 있고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내 나라를 행복넘친 인민의 조국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겠는가.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두고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슬기롭고 근면한 인민이 있으면서도 언제 한번 자기의 참다운 조국을 가져보지 못하고 그 강토마저 송두리채 빼앗겼던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참다운 인민의 국가, 진정한 조국을 가지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 우리 민족사에 얼마나 큰 경사였고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기쁨이였는가 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애국의 피끓는 위대한 심장속에 너무나도 귀중한 념원으로 간직된 사랑이였기에 새 조국땅에서의 뜻깊은 축배를 백두산위인들이신 우리 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공화국이 창건되여 람홍색공화국기가 휘날리는 날에 드셨다는 회고록의 내용을 정녕 무심히 새길수 없다.

공화국이 창건된 날 백두산위인들께서 드신 소박한 축배에는 참으로 눈물없이는 읽을수 없는 만단사연이 담겨져있다.

거기에는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을 건느실 때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다지셨던 맹세의 추억이 담겨져있고 인간이 겪을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시며 헤쳐가신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과 만주벌 눈바람, 밀림의 긴긴 밤의 잊을수 없는 사연들이 비껴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정든 고향 오산덕을 뒤에 두시고 두만강을 건느실 때 들으시였던 망국민의 눈물젖은 구슬픈 노래가락과 기어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리라는 결의를 안으시고 백두밀림에서 부르시던 《사향가》의 절절한 선률도 어려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김정숙동지께서는 건국의 나날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첫 인민혁명정부에 휘날리던 붉은기에 투사들의 붉은 피와 민족의 넋, 공화국의 자주권과 미래의 승리의 상징을 새겨넣으시며 그토록 심혼을 기울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마련해주신것이리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존엄높은 공화국기발이 창공에 나붓기기 시작한 때로부터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은 진정한 조국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안겨들었고 그 귀중함을 뼈에 새길수록 절세의 위인들의 품이야말로 참다운 조국의 품이라는것을 심장깊이 간직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우리 국기가 처음 나붓기던 67년전 그날 백두의 기상이 넘치시는 30대의 건국수반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김일성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내다보았다. 공화국기가 휘날리던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건국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왔으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여왔다.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백승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그 길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포연서린 전선길도 있었고 허리띠를 조여매고 재더미를 헤치며 자립의 터전을 다져나간 전후복구건설의 험난한 길도 있었으며 세계를 휩쓰는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 사회주의를 지킨 영웅적투쟁도 있었다. 이 기발을 휘날리며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하였고 비약하였다. 그 성스러운 기발은 온 세상에 그 이름 빛나는 우리 조국의 상징, 정의와 승리의 표대였다.

우리의 공화국기를 더욱 세차게 휘날리시기 위하여 멀고도 험난한 선군혁명의 길을 앞장서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있어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압살책동속에서도 저 푸르른 하늘의 구름우에는 언제나 조선의 참매가 날고 목란꽃핀 이 강산은 부러움없는 아침의 나라로 영원한 빛을 뿌릴수 있었다.

잊을수 없는 주체91(2002)년 설달그믐날에도 새해 2003년을 공화국창건 55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대경사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이 어떤 공화국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크나큰 사랑을 담아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도 오직 공화국기발 휘날리는 조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을 적시시며 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이 땅에 수령영생의 성스러운 력사를 펼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부강조국건설의 귀중한 혁명유산,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전면적으로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대로 펼치시고 혁명과 건설을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령도하시며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조국통일위업도 반드시 성취하시려는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날과 더불어 더욱더 빛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력은 백배해지고있다.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렇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성스러운 람홍색공화국기의 세찬 퍼덕임소리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낳은 제2의 애국가—《조국찬가》의 장중한 선률을 듣는다.

우리 공화국은 오늘도 래일도 세계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 빛날것이며 성스러운 람홍색공화국기발은 영원히 강성조선의 기치로 휘날릴것이다.

무궁토록 나붓기라, 선군조선의 람홍색공화국기발이여!

글 본사기자 김 준 혁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항일혁명투사들의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공화국기발!

바로 이 기발에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와 빛나는 혁명전통,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만 줄달음칠 아름다운 미래가 다 비껴있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건국의 그날 우리의 국기에 담아야 할 사상적내용과 그 표현방도까지 가르쳐주시며 공화국기를 훌륭히 완성시켜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모습을.

공화국기, 정녕 걸음걸음, 시시각각 생사를 판가리하는 그처럼 엄혹한 시련을 뚫고헤치며 오직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꿋꿋이 싸워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넋이 성스러운 우리 공화국기발에 얼마나 뜨겁게 스며있는것인가.

항일무장투쟁, 그것은 곧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인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피어린 전쟁이였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주체22(1933)년 3월 왕청 제5구 인민혁명정부수립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정에 넘쳐 하시던 력사적인 연설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의 구절구절이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인민혁명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 정권이 아니라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부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리익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정권입니다. …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인민혁명정부, 그것은 세계정권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였고 정권문제해결을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마련된 혁명의 전취물이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처음으로 정권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보았다. 인민혁명정부가 안겨준 땅에서 새 조선의 첫 국기의 퍼덕임소리를 들었다. 비록 이역땅의 이름없는 마을에 세워졌던 인민혁명정부였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여기서 해방된 새 조국땅에 서게 될 인민의 새 나라를 그려보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나라의 해방은 반드시 이룩되고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가 일떠선다는 불굴의 신념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혁명위업에 충실하려는 드팀없는 의지를 지니였기에 투사들은 아직은 조국해방이라는 력사적위업이 멀리 앞에 놓여있었고 생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던 시각에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라는 구호를 한자한자 새겨넣을수 있은것이다.

투사들모두의 심장에서 뿜어지던 혁명의 피방울이 성스러운 우리 공화국기발에 얼마나 뜨겁게 스며있는가.

그렇다.

우리 조국은 백두의 기상과 혁명정신이 어려있고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스며있는 공화국기를 펄펄 날리며 세기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왔다. 이 기발을 추켜들고 침략자 미제를 쳐물리쳤고 이 기발 높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이 기발이 날리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었다.

희세의 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였기에 백두의 넋을 안은 람홍색공화국기는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치로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선군으로 맑고 푸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서 람홍색공화국기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대로 영원히 휘날리며 성스러운 기폭에 백승만을 아로새길것이다.

본사기자

성스러운 기폭에 새기신 숭고한 뜻

몸소 그려주신 도안

주체37(1948)년 1월 어느 날이였다.

이날 일군들이 올린 국기도안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기의 색갈을 붉은색, 흰색, 푸른색으로 하니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금 국기도안은 아직도 붉은색, 흰색, 푸른색의 비률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공화국기의 중간부분은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우와 아래부분은 흰색과 푸른색이 각각 대칭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흰색과 푸른색의 폭을 지금보다 가늘게 하면서도 잘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잠시후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을 놓고 좀 의견을 나누어보자고 하시며 여러장의 국기도안을 펼쳐놓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그리신 국기도안이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국기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도 잘 맞추고 흰 동그라미의 위치도 지금처럼 중심에 놓지 말고 기발대쪽으로 가져가는것이 좋겠다고, 흰 동그라미안에 백두산과 해를 그린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오각별을 그려넣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국기도안창작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방향뿐아니라 거기에 담아야 할 사상적내용과 그 표현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정녕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기가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될수 있었다.

국기, 국장에 깃든 사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주체37(1948)년 봄 어느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기와 국장도안을 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밤도 퍽 깊었는데 오늘은 그만 주무셔야 되지 않겠는가고 거듭 말씀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기와 국장도안이 채 완성되지 못했는데 자리에 누워야 잠이 제대로 올것 같지 않다고 하시며 도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용광로가 그려진 국장도안을 조용히 들여다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발전소를 그려넣으면 전기화를 반영할수 있을것 같다고 말씀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옳소! 발전소, 우리 나라 수풍발전소를 넣는것이 좋겠소라고 하시며 국장도안에 연필로 수력발전소의 모형과 철탑의 모형을 표시하시였다.

후날 국장도안은 심의자들과 군중으로부터 만장일치의 찬성을 받았다.

그 누구보다도 국기, 국장의 제정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이 사업이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신분이 바로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전 광 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우즈베끼스딴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따슈껜뜨

우즈베끼스딴공화국 대통령

이 슬 람 까 리 모 브 각 하

나는 우즈베끼스딴공화국의 민족적명절인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귀국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9월 1일 평 양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탄부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당보에 실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위대성기사와 자료들을 통한 교양사업도 계획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하시고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시여 공화국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신데 대한 혁명력사도록을 당세포와 근로단체별로 깊이 학습하도록 한데 기초하여 연구토론회를 조직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이 땅에 백승의 력사가 끝없이 펼쳐질수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당의 선군사상을 뼈와 살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고 석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들을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강의한 의지로 빛내이신 고결한 한생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보현선생님의 서거 6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천만군민의 영웅적기상은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위대한 혁명정신에 중요한 원천을 두고있다.

당창건 70돐을 앞두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때에 우리는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보현선생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김보현선생님의 서거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넋을 지니시고 조국의 해방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오신 선생님의 생애를 뜨겁게 되새기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오늘도 만경대고향집뜨락에 들어서면 남자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시며 사랑하는 아드님들과 손자분들을 혁명의 길로 떠나보내시던 김보현선생님의 모습이 어리여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온 가정이 달라붙어 기를 쓰고 일하여도 죽도 변변히 입에 댈수 없었던 당시에 있어서 자손들을 모두 혁명가로 키우시였다는 그자체가 김보현선생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시였는가를 말해주고있다.

김보현선생님께서는 남들처럼 아드님과 손자분들을 끼고있으면서 그 덕을 보아 고생을 더실수도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자신보다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였고 그로 인한 온갖 고생을 강의한 의지로 이겨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숭실중학교에 다니실 때에도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아드님이 공부를 끝마치면 집살림살이가 펴일것이라고 생각하신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할것을 바라시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실 때에도 아버지가 령어의 몸이 되였으니 이제는 네가 나설 차례라고 하시며 손자분을 혁명의 길로 서슴없이 떠나보내시였다.

정녕 그것은 가정보다도 먼저 빼앗긴 조국을 생각하신 김보현선생님의 강의한 신념과 의지의 숭고한 발현이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도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국해방위업의 실현을 확신하시며 온갖 고초와 시련을 굴함없이 이겨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영향력이 날로 커가는데 당황망조한 일제는 만경대고향집을 봉쇄하고 감시까지 해가며 어떤 때에는 일가분들에게 행패질까지 감행하는 온갖 비렬한짓을 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추악한 변절자들이 김보현선생님께서 계시는 댁에 달려들어 돈뭉치를 내놓으며 회유하려고 하였다.

그때 원쑤에 대한 증오로 하여 격분을 금치 못하신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이 천하에 고현놈들, 그래 우리보고 제 손자의 목숨을 돈과 바꾸라는거냐, 그런 개수작질은 싹 걷어치우고 당장 물러가라고 불호령을 내리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한풍을 헤치며 항일혈전을 벌리시던 나날 할아버님을 비롯한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지조와 투쟁소식에서 크나큰 고무를 받으시였고 조국해방의 의지를 더욱 굳히시며 투쟁의 길을 억세게 걸어나가시였다고 뜨겁게 회고하군 하시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 그리운 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이 서른살이 넘도록 효도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하다가 못한 조선독립을 해냈으면 그게 효도지 그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는가고,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면 그게 효도라고 하신 김보현선생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항일혁명투쟁시기는 물론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 이어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이르기까지 김보현선생님께서는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애국위업을 열렬히 받드는것을 자신의 몫도 없는 본분으로 여기시였다.

나라찾는 성스러운 싸움에 자제분들을 바치시고 손자분들을 내세우신 선생님께서는 해방후 편히 쉬시여도 되시련만 어느 하루도 쉬려고 하지 않으시였다.

이른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시여 거름을 모으시였고 땔나무도 손수 해오시였다.

해방후 김구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탄복한것도 바로 그것이였다.

한 나라 국가수반의 조부이시였지만 그 어떤 대우도 바라지 않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시는 국사가 잘되기만을 바라시여 말년까지 수수한 평백성으로 농사일을 계속하신 김보현선생님과 같으신 그런 위대한분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쓰신것처럼 자식들을 키워 고스란히 혁명의 길에 내세우고 그에 뒤따르는 갖은 고초와 시련을 묵묵히 견디면서 자손들의 뒤를 꾸준히 받쳐준다는것이 어찌 한두번의 전투나 몇년간의 감옥살이에 비길수 있겠는가.

나라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 제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다는 진리를 뼈아프게 절감하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열렬한 애국자의 거룩한 자욱을 찬란히 수놓으신 김보현선생님,

김보현선생님의 한생은 이렇듯 만경대가문의 가풍을 빛내이신 한생이였고 인간의 참된 삶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준 고귀한 생애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경대혁명가문의 애국, 애족, 애민의 빛나는 가풍을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며 그 길에서 김보현선생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고귀한 념원을 더욱 활짝 꽃피울것이다.

본사기자 강 철 남

당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만사가 잘된다

지난 10여년동안 축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 계남목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황해남도에서는 계남목장관리운영을 잘하여 이 목장이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한몫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2(2003)년 한해동안에 계남목장을 두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목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목장에서는 결사관철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나날에 그전에 비하여 한해 젖생산량을 30배이상 늘이는 기적을 창조하고 돼지기르기를 활성화하였다. 결과 해마다 축산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도 종업원들의 생활향상과 일터와 마을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 사업 등 당정책관철에서 황해남도의 본보기가 되고있다.

목장이 흥하고있는 비결을 놓고 주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만사가 잘된다!

이것이 그들이 실천속에서 찾은 귀중한 경험이고 진리였다.

자력갱생하여 꾸린 튼튼한 생산토대

령도업적단위들이 오늘도 래일도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본보기가 되자면 무엇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내밀어야 하는가. 이 목장 일군들의 경험이 그에 대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후 목장앞에는 당장 착수해야 할 일감이 산같이 쌓였다. 우량품종육종, 먹이생산, 사양관리, 수의방역사업 등 모든것은 하나같이 미룰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였다.

그렇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틀어쥐고 내밀어야 하겠는가. 정확한 판단과 결심채택을 요구하는 정황이였다.

이런 때 당의 요구는 무엇이겠는가.

지배인 리수영동무를 비롯한 목장책임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에 립각하여 문제해결책을 찾을것을 결심하였다.

매 문장, 문구를 깊이 새겨가던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남목장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 필요한 알곡먹이를 자체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신 교시에서 눈길을 떨수 없었다.

이 강령적지침에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틀어쥐고 생산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축산물생산을 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그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돌이켜볼수록 령도업적단위가 된것이 마치도 웃기관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자격을 받은것처럼 여기며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한 자기들의 그릇된 관점과 일본새가 가슴에 걸리였다. 때문에 이것이 걸렸소, 저것이 걸렸소 하면서 우에 제기할 줄만 알았지 제땅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알곡먹이생산을 늘일 생각은 하지 않고 해마다 수백t을 도처에서 보충받느라 뛰여다닌 자기들이였던것이다. 자기 집살림을 남의 손을 빌어서 하였으니 어떻게 살림이 펴일수 있었겠는가.

제힘을 믿지 않으면 약자가 되는 법이다. 찾은 교훈이 큰것만큼 분발심이 강해졌다.

일군들은 돼지를 기르면 물거름이 많이 나와 농사도 잘 지어 먹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묘책까지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받들 결심을 안고 그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제힘으로 해낼 각오로 나서자 담력이 생겼다. 일군들은 수천마리의 집집승이 욱실거릴 배일을 내다보며 먹이생산토대 축성작전을 하게 되였고 결과 3가지 대책적문제를 찾아낼수 있었다.

첫째는 돼지품종을 바로 선택하여 육종체계를 세우는 문제였다. 근거가 있었다. 거름을 많이 생산하자면 지금보다 1 000마리의 돼지를 더 길러야 하였고 이를 빨리 해결하는 길은 새끼낳이성과 증체률이 높은 품종을 찾아 육종체계를 세우는데 있었기때문이였다.

일군들모두가 필요한것이라면 하루밤에 수백리를 달려서라도 해결해오는 인수원이 될 각오를 가지고 다른 도에까지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면서 요구조건을 충분히 갖춘 우량품종 돼지를 선택하여 구입하였다. 이어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과학적인 3원섞붙임방법을 찾아 도입함으로써 육종체계를 세워놓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종전보다 한해에 어미돼지 마리당 4마리의 새끼가 더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은 이 성과를 공고히 할수 있게 돼지우리의 겨울철온도보장을 위한 이중벽체, 천정, 바닥보온공사와 확장공사를 다그쳐 끝내게 하였다. 또한 토지개량과 강냉이영양단지모, 두벌농사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알곡, 푸른먹이생산을 늘이였다.

결국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여 해가 다르게 돼지마리수가 늘어나고 증체률이 높아짐으로써 한해에 7 000t이상의 질좋은 거름이 나왔다.

둘째로는 이 거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건설이였다. 모두가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자 단숨에의 기상이 나래쳐 짧은 기간에 건설해놓고 질좋은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을 정상화하게 되였다.

결과는 좋았다. 지력이 높아져 정보당 알곡, 푸른먹이수확량이 종전보다 2배이상 늘어나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는 비할바 없이 높아졌다.

셋째는 배합먹이생산 및 공급체계를 과학적으로 세우는 사업이였다. 당시 이 목장에서는 크지 않은 가공기지를 꾸려놓고 일률적으로 생산한 배합먹이를 호동들에 공급하군 하였었다. 돼지인 경우 품종별, 무리별, 일령별에 따라 먹는 량이 다른데 정확한 계산도 없이 먹이다나니 많은 먹이를 소비하고있었다. 더우기 마리수가 대폭 늘어나게 될 후날에 가서는 이 문제로 해서 목장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받을것이고 그러면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일수 없었다.

문제를 이렇게 본 일군들은 목장기술력량의 힘을 믿고 이 기술혁신에 달라붙었다. 그때 생산과장 김상룡동무가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콤퓨터를 리용하여 종축, 새끼, 비육돼지 그리고 일령별, 나이별특성에 맞게 우리간당, 마리당 먹이성분과량을 과학적으로 정해놓고 매일 생산공급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놓자는것이였다.

책임일군들이 찬성해나섰고 대중을 발동하여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그후 목장에는 콩기름생산기지와 함께 분쇄기, 혼합기, 성형기 등 먹이가공에 필요한 각종 설비들을 갖춘 수백㎡의 배합먹이공장이 건설되였다. 여기서는 먹이생산표에 따라 강냉이, 콩깨묵, 쌀겨, 낟알짚, 첨가제 등의 배합비률이 각이한 먹이가 생산되였다. 이 배합먹이를 우리간별, 마리별먹이공급표에 따라 정확한 공급량을 저울에 달아서 용기에 포장한 다음 호동들에 공급해주었다.

이밖에도 그들은 집집승에게 각종 미량원소를 보충해주는 광물질덩이먹이생산방법을 찾아 도입하였다.

결과 목장에서는 그전시기보다 한해에 100t이상의 알곡먹이를 절약하면서도 축산물은 물론 거름생산량도 늘이게 되였다.

축산부문이라고 해도 먹이생산토대축성 이 하나만으로는 생산정상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일군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다. 축산제3분장이 건설되여 규모가 커지고 농산분장의 토지개량목표가 높아지자 그만큼 석탄, 소석회, 소금요구량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 모든것을 남에게 손을 내밀어 해결해야 하였으니 제대로 될리 만무하였고 그만큼 투자몫이 커서 목장관리운영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었다.

남만 처다보다가는 패배주의에 빠져 영원히 주저앉을수 있다. 령도업적단위가 자력갱생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당의 권위를 옹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결심을 굳힌 지배인은 일군들에게 뜨겁게 호소하였다.

우리에게는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뻗치고 자력갱생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자.

일군들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자체탄광과 소석회생산기지, 소금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지배인은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앞장에 섰다. 그는 끝장을 보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을 강심으로 해당 부문을 찾아 개발허가를 받은 즉시 현장에 눌러앉아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당조직에서 힘있는 사상공세로 일군들과 청년들을 조직동원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일떠선 탄광과 소석회생산기지에서 생산을 시작하였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였다. 탄광과 소석회생산기지가 은을 내자 농산분장, 축산분장들의 생산정상화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뿐만아니라 건물건설과 보수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일터와 마을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게 되여 좋았다.

목장자체의 힘으로 10정보의 소금밭건설을 단 10일동안에 해제낀 경우 역시 그렇다. 그때 책임일군들이 질통을 지고 감탕판을 달렸던 이야기는 오늘도 옛말처럼 종업원들의 입에 오르고있다. 소금생산기지가 건설되자 한해에 생산된 수백t의 소금을 축산에 리용하고도 남아 종업원가정들에까지 공급해주게 되였다.

목장에서는 이외에도 설비수리기지, 메탄가스생산기지, 자연흐름식물공급시설 등을 비롯한 자력갱생기지들을 건설해놓고 당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우리 식의 과학화로 연증산의 돌파구

당정책의 요구대로 축산도 과학축산을 하여야 축산물생산을 늘이고 경제적실리를 보장할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 목장 일군들의 경험은 교훈적이다.

우리 나라의 조건에 맞게 우량품종의 염소육종체계를 세워 젖생산을 늘인 경우를 놓고보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목장의 종체계를 세워 젖생산을 늘일데 대한 높은 뜻이 깃들어있었다.

물론 이 육종은 그들에게 있어서 초행길이였고 그 성공의 담보도 없었다. 현실은 기술자들이 무조건 해야 하며 또 해낼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을것을 요구하였다.

담대한 배짱은 알아야 생긴다. 이것을 명심한 책임일군들은 인재를 중시하고 적재적소에 선발배치하였으며 해당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기술강의와 전습을 진행하고 과학기술협조를 강화하여 그들의 실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런 준비에 기초하여 목장에서는 우량품종육종사업을 세단계로 정하고 근기있게 전개해나갔다.

첫단계로 정한것은 새 품종 염소를 풍토순화시키는 사업이였다.

방목을 하지 않고 우리안에서 배합먹이로 키운 새 품종 염소를 우리의 토종염소처럼 풀먹이를 위주로 하여 기를수 있게 만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작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것은 당정책이므로 우리의 힘으로 무조건 풀어야 한다. 일군들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술자, 관리공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치였다. 그리하여 배합먹이량을 점차 줄이면서 대신 푸른먹이와 거친먹이량을 늘일 방도를 찾아냈다. 이어 각종 풀, 낟알짚, 남새, 알곡의 성분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새 품종 염소의 영양상태를 과학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먹이생산과 공급체계를 세웠다. 또한 기술전습을 조직하고 관리공들의 책임성과 함께 기술수준을 높여주었으며 염소의 생리적변화에 따라 기술적대책을 세워주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도록 떠밀어주었다.

결국 이들은 남의 배합먹이를 쓰지 않고 우리 식의 먹이로 새 품종 염소를 기르는데 성공하였다.

이 성공은 더 큰 성공을 련이어 낳게 하였다.

두번째 단계인 원종보존문제 해결에서 새 품종 염소들의 래력표를 깊이 연구하고 유전학적 분석에 의한 개체선발을 바로하여 우리 식으로 그 체계를 확립해놓았다.

마지막단계는 우량품종육종체계를 세워 그 마리수를 늘이는것이였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원종과 토종염소의 생리적우점이 유전되게 하기 위해 3대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무진섞붙임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인내성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토종보다 젖생산량이 3배이상 높으면서도 생활력이 강한 우량품종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육종체계를 우리 식으로 세워놓는데 성공하였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이 성과를 확대해나갈수 있는 인공수정기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새끼배는률을 95%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 몇해후부터 목장에서는 해마다 우량품종 새끼염소생산은 수천마리이상, 젖생산량은 수백t수준으로 올려세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과학축산에서의 성과는 기술력량이 그쯘하다고 해도 무조건성의 정신이 없으면 기대할수 없다.

집집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집행과정을 례들어 보자.

어미염소사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겨울철의 영양보장문제였다. 새끼를 낳기 전후시기인 이때 영양분이 많은 즙먹이를 위주로 먹여야 젖생산을 늘일수 있었다. 기사장 림한호동무와 농산분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종업원들의 노력끝에 분쇄한 낟알짚과 함께 절임한 푸른 강냉이대, 생무우를 충분히 먹이면 영양성분을 보충할수 있다는 방도를 찾게 되였다. 그후 지력이 높은 땅에 앞그루로 강냉이를, 뒤그루로는 가을무우를 재배하는 두벌농사방법이 도입됨으로써 그 수확량이 늘어난 때였다.

뜻밖의 난문제가 생겼다. 겨울철먹이로 쓰기 위해 종전의 방법으로 땅속에 묻었던 많은 무우가 못쓰게 되였던것이다. 1 000여t의 생무우를 늦가을부터 이른봄까지 6개월동안 간단한 방법으로 얼거나 썩지 않게 보관할 방도를 찾아내야만 하였다.

그후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어들었던 사람들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모대기였지만 묘안은 좀처럼 나지지 않았다. 그러자 종전처럼 무우를 절임하는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때 책임일군들은 이 문제를 당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정치적사업으로, 무조건 수행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그 앞장에 섰다. 그뒤를 목장, 분장일군들이 따라나섰다.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사고하면 도식과 틀이 깨지기마련이다. 드디여 찾아낸 묘책은 간단하면서도 실리가 있었다. 가을에 캔 무우를 먹이창고안에 일정한 높이로 펴고 그우에 벼겨 또는 북데기를 한뽐이 넘도록 덮어주니 이듬해 4월까지도 생생하게 보관할수 있었던것이다. 이 무우를 햇풀이 나올 때까지 썰어먹였더니 염소의 젖량이 절임한 무우를 먹였을 때보다 1.3배로 늘어났다.

수의방역대책을 우리 식으로 세운것도 교훈적이다.

수의방역이자 축산물생산이라는 당의 축산정책의 요구를 깊이 새긴 일군들은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좋은 안들을 내놓았다. 일군들은 그것을 종합한데 기초하여 목장에 수의방역대를 조직하고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해나가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후 목장에서는 필요한 기술력량과 설비, 기구를 갖춘 수의방역대를 꾸려놓고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소독, 검역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해나가게 되였다. 특히 새끼염소가 젖을 뗄 때까지 방역사업을 잘한 결과 육성률을 처음보다 30%이상 더 높여 어미염소마리수보장과 젖생산의 안전성을 담보해주었다.

계남목장에서는 지난 10여년동안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목장을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키고 해마다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총 수만마리의 우량품종 새끼염소와 수천t의 요구르트, 빠다, 치즈 등 젖가공품을 생산보장함으로써 도의 축산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현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있는가.

그것은 어느 축산기지에서나 당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면서 우리 식의 창조기풍으로 축산물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해나간다면 만사가 잘되게 된다는것이다.

본사기자 태명호
본사기자 주창일

능률높은 농기계, 농기구생산에 박차를

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해주련결농기계공장에서

해주련결농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군자리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농기계생산에서 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불같은 일념안고 떨쳐나선 이들은 줄기찬 돌격전을 벌려 지난 8월말현재 6종에 수백대에 달하는 모내는기계, 수동식모내는기계, 이동식소형종합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많은 부속품들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능률높은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데 대하여 주신 과업을 받아안은 이들은 결사관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에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밀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심장마다에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기질, 본때가 세차게 맥박치도록 일대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 공장은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으로 부글부글 끓었다.

일군들은 공장의 실정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도를 짜고드는 한편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전투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갔다. 또한 부족되는 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로동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불같은 열의속에 치렬한 생산전투가 벌어졌다. 이들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려 무기를 생산한 군자리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떨쳐나 한달동안에 수백개의 양수기부속품을 생산하여 농촌들에 보낸 기세드높이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소재직장의 로동자들이 기대관리에 큰 힘을 넣어 만가동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 수십t의 소재들을 생산하였다.

당정책관철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철의 신념을 지닌 주물직장의 로동자들은 전기가 긴장한 조건에 맞게 용선로를 새로 만들고 발동기를 돌려 20여t의 주물품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가공직장의 일군들은 모내는기계 한대에만도 수백개의 부속품이 들어가는 조건에 맞게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직장의 로동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부속품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제관직장, 조립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들에서도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해주었다.

온 공장에 군자리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당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운산군 조양협동농장에서

높은 책임성으로 담보되는 알찬 열매

지난 어느날 벼이삭이 나오기 시작한 포전을 돌아보던 운산군 조양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송철호동무는 일부 포전에서 논물깊이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는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에 일부 일군들이 조직사업으로만 그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이악하게 뛰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대진군에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이 시기는 벼가 많은 물을 요구하면서도 고온피해를 받기 쉬운 때이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일정한 깊이로 흐름식물대기를 진행하는것과 함께 밤에는 물을 빼고 아침에 새로 대도록 하였다.

그런데 자연흐름식으로 물을 댈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맞게 이런 조직사업을 하였지만 물깊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이로부터 관리위원장은 유리한 물보장조건이 온을 내지 못하고있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논물관리공들과의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하지 못한데 있다는 교훈을 찾게 되였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일군들과 함께 우선 물고높이를 토양특성과 지형조건에 맞게 조절하도록 하였다.

모래메흙땅으로서 물이 잘 스며드는 특성이 있는 높은 곳의 포전은 물고를 전반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래에 위치한 포전은 여러가지 조건을 보아가며 물고높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논물관리공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여기서 토양조건과 벼의 생육상태에 따르는 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관리에서 잘한 점과 부족점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현장에 나가 앞장에서 자기 단위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역할을 하는것이 오늘날 우리 당이 바라는 일군의 일본새이다.

이것을 명심한 농장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담당한 작업반, 분조들에 나가 농장원들속에 몸을 푹 잠그었다.

그들은 논물관리공들과 함께 논벼의 생육상태에 따르는 물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천해나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논물관리공들이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논물관리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든 결과 논벼후반기생육에 좋은 조건이 마련되여 천알질량을 늘일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황철민

새로운 기준, 높아지는 성과

강서분무기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 현대적인 여러가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것과 함께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강서분무기공장 지배인 리효욱동무의 눈에는 모든것이 다르게 안겨왔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그는 공장에서 만들어내고있는 배낭식분무기가 농장원들속에서 호평도 받아왔고 그만하면 생산량도 괜찮다고 만족스럽게 여겨왔다. 하지만 농기계생산자들이 농촌기계화의 전초병이라는 본분을 깊이 자각하도록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난 그는 지난 시기 성과에 만족했던 자신을 심각하게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성과가 오르는것만큼 기준도 새롭게 높이 정해야 한다. 그는 종전보다 능률적인 배낭식미립분무기를 새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자기의 결심을 일군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놀라와하는 일군들을 바라보며 지배인은 힘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지난날의 성과에 만족하여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일군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일군들이 받은 가책은 컸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이렇게 지배인으로부터 나어린 처녀기대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능률높은 분무기를 하루빨리 완성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하나의 지향으로 맥박쳤다.

즉시 미립분무기를 만들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미립분무기는 종전의 분무기에 비하여 분무립자를 보다 미세하게 함으로써 농약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작업능률을 높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실리적이였다.

미립분무기를 만들자면 무엇보다먼저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으면서도 쓰기 편리하게 설계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공장을 개건하는 바쁜 속에서도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시험장치들을 만들어놓고 미립분무기를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해보면서 연구를 거듭하였다. 열성 하나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수 없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지금 생산하고있는것도 괜찮은데 부디 힘들게 만들어야 하겠는가고 하였다. 그럴 때마다 지배인은 단호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미립분무기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사회주의협동벌에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모두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의지, 자기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높은 요구성은 드디여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게 하였다.

새로운 기준, 높아지는 성과,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기계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주신 전투적과업을 받아안고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대답이였다.

김강철

농기계생산의 발전추세(1)

세계적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알곡은 식량문제해결에서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그 원가계산에서 로력소비는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알곡생산의 종합적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면서 농기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특히 흰쌀은 세계인구의 약 50%가 주식으로 하고있기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벼농사의 기계화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일부 나라들의 알곡증수몫에서 육종 및 재배기술몫, 관개기술몫이 각각 30%이고 현대적농기계몫은 40%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현대적농기계몫이 늘어난것은 기계화수준을 최대로 높여 좋은 농작물생육조건과 영농적기를 제때에 보장하고 알곡손실을 극력 감소시킨데 있다. 이처럼 기계화수준이 높아진것은 영농공정별에 맞게 농기계들을 현대화하였기때문이다.

농업생산의 첫 공정인 토양관리와 함께 농기계에 대한 연구에 큰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호갈이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있으며 빠른 속도로 확대도입되고있다.

보호갈이는 중요하게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토양구조성을 개선하며 갈이바닥의 굳은 층을 마스고 논밭수명보존, 에네르기절약 등 많은 점에서 우월성을 나타내여 그 도입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보호갈이기계는 작용체설치틀의 구조가 사선배치가 아니라 직사각형모양으로 되여있고 동력이 적게 들어 다용도화, 종합화, 광폭화, 고속화된 농기계들로 발전할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농업기계화연구소 부소장 박만성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를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대동군농기계작업소에서—
본사기자 윤용호 찍음

애국적헌신성을 높이도록

우시군 가하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참된 애국자들로 준비시켜 영농전투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경험이 풍부한 선동원들로 경험토론회, 보여주기사업 등을 자주 조직하여 화선식선전선동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하고있다.

또한 사람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긍정적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헌신성을 부쩍 높여주고있다.

오늘도 이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겨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최창률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정을 힘있게 과시

공훈국가합창단이 청봉악단과 합동출연하는 초대공연 모스크바에서 대성황리에 진행

조국해방 70돐과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뜻깊은 조로친선의 해인 올해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국가합창단이 청봉악단의 주요배우들과 함께 로씨야련방을 방문하고 있다.

우리 예술인들을 맞이한 모스크바시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였던 력사의 나날들과 조로관계의 의의깊은 사변들이 아로새겨진 자기들의 도시에서 조선의 관록있는 예술단체의 공연을 보게 된 기쁨을 안고 우리의 예술사절들에게 친선의 정이 어린 따뜻한 인사를 보내고있다.

공훈국가합창단이 청봉악단과 합동출연하는 초대공연이 8월 31일 저녁 로씨야의 이름있는 력사 및 문화대상인 챠이꼽스끼명칭 음악당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고리 모르굴로브 외무성 부상, 끼릴 스께빠노브 원동발전성 국무비서 겸 부상,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공연에 초대되였다.

로씨야정계, 사회계 등 각계인사들과 군인들, 모스크바시민들, 재로씨야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김형준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국가의 장중한 주악으로 막을 올린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받들어 선군으로 존엄높고 강위력한 사회주의조국을 세계적인 문명강국으로 일떠세우려는 조선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해 신심드높이 노도쳐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담대한 기상을 담아 편곡형상한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가 경쾌하게 울려퍼졌다.

민족적향취를 한껏 풍기는 《아리랑》의 선률이 장새남의 연주로 흘러나오고 피치카토를 비롯한 기교적인 연주형상이 흥취를 돋구는 관현악은 우리 인민의 열렬한 조국애로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새로운 경지의 특색있는 관현악울림에 심취된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무대에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무적필승의 기상이 높뛰는 관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미제를 타승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스러운 군가명곡을 남성중창과 경음악으로 형상한 《근위부대자랑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천만군민의 의지를 담은 녀성독창과 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선군의 길에서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구가한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철령아래 사과바다》 등의 종목들이 련이어 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백두의 붉은기를 끝까지 휘날리며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힘차게 떨쳐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맥박치는 곡목들은 장내를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천하를 뒤흔드는 뢰성벽력과도 같이 장중하게 울리다가도 봄날의 대지처럼 부드러운 정서로 마음을 사로잡는 높은 예술적형상, 민족적인것과 현대적인것의 조화로 완전히 새로운 맛이 나는 박력있고 섬세하며 률동적인 음악을 감상하며 관중들은 합창단의 특출한 형상적매력에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타는 고지에서 울려퍼진 명곡 《전호속의 나의 노래》와 로씨야노래 《넓은 대지 씨비리》를 남성독창과 무반주합창으로 형상한 종목들은 풍만한 성량과 째인 안삼블로 두 나라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정서를 무게있게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관중을 깊은 사색과 서정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종목이 끝날 때마다 장내에서는 《훌륭하다!》, 《멋있다!》는 찬사들이 터져나오고 관중들은 저저마다 무대우로 올라가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관현악 《세계명곡묶음》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음악예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규모와 형상수준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강화발전된 공훈국가합창단 관현악단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관현악의 비상한 예술적감화력에 매혹된 관중들은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남성합창 《앞으로》, 남성중창과 경음악 《병사들 사내대장부들이여》 등 로씨야의 노래들이 힘있고 경쾌하게 울릴 때마다 환호를 올리였다.

대음악서사시를 방불케 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를 이루었다.

무대에는 로씨야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고 오늘도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노래들을 손색없이 형상한 종목들도 련이어 올랐다.

우리 나라의 또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인 청봉악단의 가수들이 공훈국가합창단의 배우, 연주가들과 함께 출연하는 관현악과 녀성중창과 합창 로씨야노래련곡 《평화를 위하여》는 장내를 흥분의 도가니로 끓게 하였다.

쏘베트인민의 심장을 증오로 불태우며 파시스트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결사항전에로 불러일으킨 《정의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스크바의 노래》, 《까츄샤》, 《무명고지에서》, 《푸른 수건》 등 로씨야인민을 애국주의정신으로 단합시켜주는 노래들이 청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참신한 음악형상으로 울려퍼졌다.

로씨야노래련곡을 마감하는 《승리의 날》이 관현악과 합창으로 힘차게 울려퍼지자 전체 관중들은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보내며 열렬히 호응하였다.

청봉악단의 가수들은 녀성중창 《로씨야처녀노래련곡》도 섬세하고 흥치나는 성악기교와 안삼블로 멋들어지게 형상하여 관람자들을 흥분으로 들끓게 하였다.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관중들과 열정적으로 호흡하며 출연자들은 조로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다시금 새겨주었다.

공훈국가합창단의 남성5중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무대에 올라 장내를 세차게 뒤흔들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성스러운 백두의 넋과 정신으로 만난을 헤치며 싸워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힘있게 구가한 노래들은 공연을 최절정에로 승화시키였다.

전승의 날에 로씨야인민들이 달고 다니는 승리상징띠가 관람석에서 가수들에게 전해지며 합창단이 부르는 신념의 노래, 최후승리의 진군가가 안고있는 심오한 의미와 감화력이 뜨겁게 부각되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과 오랜 력사적뿌리에 기초하여 날로 두터워지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전투적우의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 공연은 시종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전체 관람자들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 《최고다!》, 《잘한다!》라고 연방 경탄의 목소리를 터치며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 예술인들이 거둔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출연자들에게 로씨야문화성,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까데미야협주단, 이고리 모이쎄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전달되였다.

성황리에 진행된 공연은 관중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외무성 부상 이고리 모르굴로브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조선의 공훈국가합창단이 로씨야에서 대성황리에 첫 공연을 한것은 로조친선의 해를 가장 뜻깊게 장식하고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공연을 통하여 새힘을 얻고 로조관계발전을 더욱 추동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원동발전성 국무비서 겸 부상 끼릴 스께빠노브는 로조친선의 해에 공훈국가합창단이 로씨야를 방문하여 쌍무관계의 긴밀감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고 하면서 공연을 통하여 조선의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깊이 절감하였다고 토로하였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노래와 로씨야노래를 출연자들과 같이 부른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께고라는 모스크바에서 세계적인 관록과 명성을 가진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게 된것을 커다란 행복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훈국가합창단을 로씨야에 보내주신것을 통하여 그이께서 로조관계발전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쥐 우말라또바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며 그 누구보다 예술을 사랑하신 **김정일**동지께서 모스크바에 오신것만 같아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고 하면서 합창단을 로씨야에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행정지배인 나딸리야 쎄묘노바는 온 세계가 보아야 할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모스크바에서 보게 된것을 커다란 긍지로 여긴다고 하면서 출연자들이 형상한 조선노래는 물론 로씨야가요들과 세계명곡들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격찬하였다.

특히 로씨야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노래들을 손색없이 형상하여 공동의 투쟁속에서 맺어진 로조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감정을 잘 보여주었다, 남성합창단의 기백있는 노래들과 부드러운 녀성미로 가득찬 청봉악단의 출연이 잘 조화되여 관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오늘은 모스크바시민들에게 있어서 진짜명절이라고 말하였다.

챠이꼽스끼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 교수 스따니슬라브 깔리닌은 청봉악단이 신인가수들로 구성되였지만 만점짜리 악단, 맑은 목소리와 아름다운 외모, 우아한 률동으로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새롭고 생신한 악단이라고 말하였다.

로씨야인민배우 올레또바는 공연이 너무도 훌륭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다, 로씨야예술인들에게 있어서 본보기이라고 하면서 공연을 통하여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조선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게 되였으며 그 어떤 원쑤도 조선을 당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챠이꼽스끼명칭 음악당 부판장 그리쉰은 우리 극장이 생겨 이처럼 열렬한 절찬을 받고 수많은 꽃다발을 받는것을 처음 목격하였다, 훌륭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우리 극장에서 보장하게 된것을 더없는 긍지로 간주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연을 취재한 로씨야의 방송, 신문 등 출판보도기관 기자들은 훌륭하다, 놀랍다, 천재적인 악단이라고 연방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들뿐아니라 수많은 관중들이 공연도중 휴식시간과 공연이 끝난 후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며 《세계에 다시없는 황홀한 공연》, 《심장을 높뛰게 해주는 예술적으로 완성된 공연》 등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선수들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 4개의 우승컵과 16개의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 선수들이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였다.

지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벨가리아의 쁠로브디브시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81개 나라의 남, 녀태권도선수 380여명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우리 선수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높은 기술,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승컵 4개, 금메달 1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남, 녀단체틀, 단체맞서기, 호신경기에서 1등을 하였다.

리충일, 한성민선수들은 남자개인 1단틀, 2단틀경기에서, 림위석선수는 남자개인맞서기 64kg급경기에서, 김수련선수는 녀자개인 2단틀과 녀자개인맞서기 75kg급경기에서, 김향심선수는 녀자개인 3단틀경기에서, 리은정, 신정화, 최수련선수들은 녀자개인맞서기 45kg급, 69kg급, 75kg이상급경기에서, 김일화선수는 녀자개인특기경기에서 각각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또한 남, 녀단체특기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2위를 차지하였다.

신정화, 김향심선수들은 녀자개인 4단틀, 녀자개인맞서기 57kg급경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받았다.

한편 김철학, 한성민, 리현, 박미향, 황수영선수들은 남자개인맞서기 50kg급, 78kg급, 85kg이상급, 녀자개인 1단틀, 녀자개인맞서기 51kg급경기에서 각각 3등을 하였다.

우리 태권도선수들의 경기성과는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또 하나의 자랑찬 로력적선물로서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다그치고있는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과 꾸바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에 즈음한

경축집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꾸바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에 즈음한 경축집회가 1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장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꾸바기발이 세워져있었다.

집회에는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꾸바공화국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위원장인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홍철 외무성 부상,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는 꾸바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집회에서는 김승두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옳바른 령도밑에 꾸바인민이 미국의 악랄한 반꾸바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면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의 력사를 대를 이어 영원히 흐르게 하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의지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꾸바인민을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에 함께 서있는 친근한 전우로 여기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두 나라가 외교관계설정 55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꾸바인민과 조선인민은 사심없는 진실한 련대성과 협조로 공동의 적과 맞서 싸워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까리브해위기때 꾸바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였다고 하면서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계승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목표들을 빛나게 점령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보다 강화발전되기를 축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통일애국투사들의 고귀한 삶과 더불어 영원할 동지애의 서사시

비전향장기수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환 1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사랑과 은정 천만년 전해지리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를 아로새기며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장군님의 품,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어느덧 15년이 되였다.

이날을 맞으며 비전향장기수들과 함께 온 나라 전체 인민은 혁명전사들의 삶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보낸 15년, 이 나날은 꺼져가던 인생들에 재생의 기쁨과 활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만사람의 존경과 축복속에 온갖 행복을 다 누리도록 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전설같은 사랑의 서사시로 엮어져있다.

글 본사기자 라설하
사진 본사기자 강정민

온 나라 인민이 조국의 장한 아들들인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보내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 9월 2일, 민족의 장한 아들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백리 연도에 꽃바다를 펼치고 《축하합니다!》, 《장합니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소리높이 웨치던 환영군중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의 귀가에 어제런듯 쟁쟁히 울려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며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어머니당이고 어머니조국이며 당과 조국의 품은 인민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고있습니다.》

고금동서에 있어본적 없는 이 극적인 사변, 세계가 경탄한 이 꿈같은 현실을 바로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남녘에서 시들어가던 비전향장기수들의 생에 기적을 주시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태양이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 청춘도 사랑도 모두 바치며 굴함없이 싸운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소식이 알려진것은 1990년대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통속에 흘러간 전사들의 한생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조국으로 데려올 결심을 품으시였다. 그이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국에로의 귀환을 실현하시기 위해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것만 해도 무려 수십차에 달한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년간의 감옥살이로 폐인이 된 전사들의 건강이 념려되시여 기울이신 정은 또 그 얼마나 뜨거운것이던가. 동지를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헤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은 귀중한 보약, 사랑의 불사약이 되여 남녘에서 고통당하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가닿았다.

각박한 세상에서 인정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해외의 인사들과 동포들이 련일 찾아가 고무격려해주었고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들의 귀환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여기에도 사랑하는 전사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어리여있었다.

과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전사들을 위해 이렇듯 마음쓰며 뜨거운 사랑을 부어준 령도자, 위인이 있었던가.

비전향장기수들이 귀환을 앞두고 조국땅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림진각에 올라 소리높이 부른 《만세!》의 웨침은 멀리에 있는 전사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잠 못 이루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는 그들의 뜨거운 인사였으며 몸은 비록 멀리에 있어도 끝까지 장군님만을 따를 충정의 맹세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9(2000)년 6월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비전향장기수귀환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것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동지적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천연암반도 녹여내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동지애가 있어 마침내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살아서는 안길수 없다고 생각했던 조국,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조국으로 돌아온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과 영광,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숭고한 사랑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 애국자, 혁명가라고 높이 불러주시며 그들을 영웅의 금별메달수훈자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고 모두에게 입당할 당시의 당원증번호가 새겨진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여 전사가 지닐수 있는 최상최대의 영광과 긍지를 안겨주시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수십년동안 이나 가슴에 품고싶었던 당원증, 파란많은 인생고초를 겪으면서도 어느 한 시각도 잊어본적 없었던 당원증에 얼굴을 묻은채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보셔야 할 일, 관심하셔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건만 그이의 심중에는 언제나 비전향장기수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갖은 악형과 옥중생활로 얻은 병때문에 고생하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건강과 빼앗긴 청춘을 되찾아주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시려고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생눈길을 헤치시며 멀고 험한 철령을 다녀오신 그밤에도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을 료해하시고 수십가지 보약과 지팽이까지 마련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희귀한 고기도 그들의 식탁에 먼저 오르도록 해주시고 민속명절날이면 몸보신에 좋다는 단고기도 맛보게 하시고 눈오는 겨울이면 털내의와 솜옷, 털신과 털모자까지 보내주신 뜨거운 온정, 생일을 맞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꼭꼭 생일상을 마련해주신 친어버이의 보살핌, 그들의 건강을 위해 취해주신 온갖 대책들…

친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어버이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재생의 활력을 부어주고 삶을 꽃피워준 생의 젖줄기였다. 그 열렬하고 무한대한 사랑이 있어 통일애국투사들은 행복과 기쁨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올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을 떠난 비전향장기수들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여 그들의 삶이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서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시였다.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적사랑은 그이의 천품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믿음과 사랑그대로 비전향장기수들을 적극 내세워주시며 그들이 건강하여 오래오래 살도록 극진히 보살펴주고계신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60돐 경축행사,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불러주시여 그들의 영광을 더욱 빛내여주시고 자신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면서도 그들이 휴양과 료양생활을 즐기며 인생의 보람을 마음껏 느끼도록 해주신 육친적사랑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지금 비전향장기수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위업에 헌신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사랑과 충정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것은 정녕 가장 숭고한 동지애의 력사, 인민사랑의 세계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수령님들의 고매한 천품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내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감격적인 화폭이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는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해질것이다.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재생의 기쁨, 보답의 마음

철창속에서 갖은 고초를 겪던 비전향장기수들은 자기들에게 오늘과 같은 날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기에 많은 비전향장기수들이 자기들의 격정을 담아 시도 짓고 글도 많이 썼으며 도서들도 집필하였다. 그 나날에 비전향장기수 김용수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박사학위까지 수여받았다.

사실 그의 건강은 집필을 허용하지 않았다. 27년간의 감옥살이후과로 김용수동지는 심장병을 앓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외국의 유능한 의료진까지 초청하여 그의 심장병을 고쳐줄데 대한 사랑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김용수동지는 남쪽에서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엄청난 자금이 드는 심장수술을 받고 소생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힘으로 붓대를 잡은 그는 새로운 도서를 집필하여 내놓기로 결심하고 달라붙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학생들속에서 많이 애독되고 수요가 높은 부피두터운 《세계유래상식사전》은 우리 장군님의 무한대한 사랑, 그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통일애국투사 김용수동지의 깨끗한 량심에 의해 나오게 되였다.

영웅될 꿈을 안은 축복이

비전향장기수 리재룡동지의 집에 들어서면 눈에 처음으로 안겨드는것이 축복이가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다. 그옆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에 리재룡동지는 그저 눈굽만 적실뿐이다.

남조선의 감옥에서 30년동안 받은 야수적고문의 후과로 성한 몸이 아닌데다가 60살을 눈앞에 두고 가정을 이룬 리재룡동지는 자기에게 자식이 생기는것을 한갖 꿈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던 그가 어버이장군님께서 몸소 《축복》이라고 이름지어주신 귀여운 딸애의 아버지가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을 담아 지어주신 이름그대로 축복이는 이 세상 만복을 받아안으며 무럭무럭 컸고 이제는 처녀티이 다 잡혔다. 지금은 강반석혁명학원에서 미래의 역군으로 성장하고있다.

《앞으로 아버지처럼 꼭 훌륭한 영웅이 되겠습니다.》

영웅이 될 꿈을 꾸고있는 축복이, 푸른 꿈을 꽃피울 희망에 넘쳐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축복이의 모습은 그대로 비전향장기수들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로쇠를 모르는 충정의 일편단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는 육체적으로는 로쇠하여도 정신적으로는 로쇠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가 70대, 80대, 90대 고령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몸의 편안만을 추구하지 않고있다.

오늘도 그들은 변함없는 열정과 의지, 위대한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갈 불타는 일념에 넘쳐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행로를 계속 이어가고있다.

지난 15년간 그들이 부르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는 백두산지구로부터 조국방선의 초소들과 공장, 기업소들, 대학들에서 높이 울렸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된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동지애의 노래》, 남조선의 독감방에서 북녘하늘을 우러러 신념의 맹세를 담아 부르던 《옥중투쟁가》…

비전향장기수들이 부르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는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지금껏 가정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사회주의대건설장들을 찾아가 혁명적인 노래도 불러주면서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준 예술소품공연과 각계층 인민들과 진행한 상봉모임은 수백차에 달한다.

혁명의 수도 평양은 물론 청진, 함흥, 신의주, 해산, 사리원, 개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진행된 비전향장기수들의 서화전시회는 근 20차에 달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서에로 보답의 길을 걷고싶어한다는 사실을 료해하시고 비전향장기수들의 서화전시회를 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주체92(2003)년 2월에 막을 연 비전향장기수들의 서화전시회는 해를 거듭하며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창작한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였다. 수십년세월 온갖 악형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영웅적사나이들이 자기 심장의 더운 피로 쓴 이 신념과 량심의 글발들은 천만군민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고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 시, 수필을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들이 창작한 힘있고 무게있는 글작품들은 수백편이나 된다.

우리 인민과 청년학생들속에 널리 알려진 수기집 《태양가까이에서》와 서정시들인 《장군님은 우리의 생명》, 《다시 찾은 이름》 그리고 수필 《거울》을 비롯하여 그들이 창작한 문학작품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널리 애독되고있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의 한편한편의 글들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귀한 정신세계에 자신을 세워보며 혁명적신념을 더욱 억세게 벼리게 하고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갈 의지를 가다듬게 하고있다.

오늘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길을 걷고있는 그들의 값높은 삶은 우리들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신념은 어떤것이며 혁명가의 삶은 무엇으로 빛나는것인가를 산모범으로 보여주고있다.

신념의 길 끝까지 걸으리

잊지 못할 9월 2일을 다시금 맞고보니 어버이수령님의 기록하신 영상이 사무치게 안겨오고 우리모두를 한품에 안아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이 못 견디게 그립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목숨바쳐 지켜야 할 혁명가의 가장 고상한 품성입니다.》

우리가 남조선에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옥중생활을 강요당하면서도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은 비전향장기수들을 보고 인간량심의 상징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군 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신념, 그 의지를 안겨주신분은 우리의 김정일동지이시다.

나는 출옥후 어느 한 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감옥에서의 인권실태》라는 제목의 토론을 한적이 있다.

내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어느 한 나라의 대학교수는 조선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불굴의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렇다.

세계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신념과 의리로 따르면서 옥중고초를 끝까지 이겨낸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국인 조선을 부러워하고있다.

나는 가끔 지나온 인생에 물어보군 한다. 내가 과연 한생을 후회없이, 부끄럼없이 살았는가고.

그리고 대답한다. 이 세상에 다시 태여난다 해도 간고했던 옥중고초의 길을 서슴없이 택할것이며 비전향장기수가 될것이라고.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시대에 비전향장기수로 태여난것을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도 그 마음으로 살고있다.

지금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월이 빨리도 흘러간다고 말하고있다. 아마도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영광과 행복속에 꿈같이 보낸 15년이여서 더욱 그러한것이 아닐가 하고 생각한다.

독감방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우리들이였다. 그러던 우리가 태양의 품속에서 그 따뜻한 사랑에 온몸을 덥히며 세상 복이란 복은 다 받아안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있다.

그때마다 고마운 우리 당과 어머니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는 자각으로 가슴을 불덩이처럼 달구는 우리들이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통일애국의 신념을 꿋꿋이 지켜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끝까지 받들어갈것이다.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

온성군 강안협동농장을 찾아서

제힘으로 일떠선 보람

온성군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강안리소재지에서 걸음을 멈추게 되였다.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소재지의 풍경이 눈길을 끌었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며 농촌마을들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려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농장일군인 황광철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어느 한 살림집으로 향하였다. 터밭을 가꾸고있던 할머니가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다. 그는 살림방들, 부엌 그리고 갖가지 남새들을 자래우는 터밭이며 집짐승우리들을 보여주면서 수도화까지 완전히 실현된 집자랑을 한가득 펼쳐놓았다. 마을의 많은 살림집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도 농장에서 자체로 새로 건설한 살림집이라고, 최근년간에 농장마을이 완전히 변모되였다고 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것 같았다. 우리는 물고기들이 떼지어 노는 양어장을 지나 목욕탕, 리발실 등이 번듯하게 꾸려져있는 문화후생시설로 걸음을 옮기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금방 리발을 하고 나오는 한 로인을 만나게 되였다. 그 역시 당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온 나라 곳곳에서 사회주의선경이 꽃펴나고있는 속에 농장에서도 자체로 이렇게 많은 살림집들을 새로 짓고 공공건물들도 모두 새맛이 나게 건설해놓았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어디에서나 이런 자랑이야기뿐이였다.

농장에서는 자기 지방의 원료에 의거하여 언제나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세멘트생산기지를 갖추어놓고 마음먹은대로 탁아소, 유치원, 상점, 온실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꾸려놓았으며 2층짜리 사무청사건설도 본때있게 벌리고있었다. 이 건물만 완성되면 소재지의 면모가 일신되는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축구경기를 할수 있는 넓은 운동장까지 새로 갖추어지게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당에서 하라는대로 자기 지방의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고장을 꾸리려는 자력갱생의 정신만 확고하면 잘살게 된다는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전변의 새 화폭을 펼쳐가는 이곳 근로자들의 창조정신과 더불어 우리는 더욱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이 꽃펴날 농장의 래일을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지혁철

일본체육대학대표단 귀국

마쯔나미 겡시로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체육대학대표단이 1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마철수 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 오창복 조선체육대학 부학장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기 단위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일본새

룡성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최근 룡성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은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갖춘 구역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불과 몇해동안에 구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비약적인 성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일군들이 당정책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체의 실정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 대담하게 착상하고 실천해나갈 때 얼마든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무엇을 중시했는가

몇해전까지만 해도 룡성구역의 인민생활을 위한 물질적토대는 빈약하였다. 몇개 안되는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들이 구역살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그나마도 공장들은 원료와 자재, 전기사정으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었다.

구역인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자면 결정적으로 자체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는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주변구역이라고는 하지만 가지고있는 협동농장도 없고 주민지구만 있는 구역에서 과연 어떻게 자체의 튼튼한 살림살이토대를 꾸릴수 있겠는가.

구역당책임일군은 문제해결방도를 찾아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당정책을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목표부터 높이 세우고 구역의 실정으로부터 지방공업공장들을 추켜세우는것과 함께 자체의 힘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갖추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폈다. 높이 세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인재선발과 능력있는 일군들을 찾아내세우는 사업에 품을 넣었다.

버섯생산이 활성화된 실례를 놓고보자.

버섯생산은 특별히 품을 넣지 않고서도 구역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좋은 방도였다.

책임일군은 버섯재배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를 찾아내기 위해 많은 걸음을 걸었다. 이 과정에 다른 버섯공장들에서는 석달동안 진행하는 버섯생산준비를 간단한 설비를 리용하여 심부액체배양방법으로 하루동안에 할수 있다는 버섯전문가를 찾아냈고 그에게 모든 연구조건을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구역에서는 자금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도 배률이 높은 현미경과 버섯기질생산에 필요한 실험기구와 설비들을 아낌없이 보장해주었고 수백㎡의 버섯기질생산장도 훌륭히 꾸려주었다. 여기서만도 하루에 500㎏의 버섯기질을 생산할수 있다니 그야말로 놀라운 수자가 아닐수 없다. 현재 구역에서는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도 빠른 시일안에 년간 수백t의 버섯을 생산할수 있는 종균을 배양하여 구역은 물론 다른 단위들에도 보장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대용원료를 기질로 버섯을 기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놓고 버섯김치와 버섯통졸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버섯가공품들도 대량생산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놓았다. 이런 성과는 구역의 책임일군들이 품을 들여 인재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떠밀어주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중의 하나이다.

당의 인재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인재들을 찾아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힘껏 떠밀어준 구역일군들의 사업기풍은 해당 단위의 일군들을 능력있는 실력가들로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실적을 올리도록 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활성화된 종어사업소의 실례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 시기 구역에 있는 종어사업소의 토대는 매우 뒤떨어진 상태였다. 구역당일군들은 종어사업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사업소를 이끌고 나갈 능력있는 일군, 실력가가 필요하다는것을 포착하였다.

그리하여 양어에 조예가 있고 책임성있는 일군을 선발하여 종어사업소를 맡기고 그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결과 사업소는 짧은 기간에 튼튼한 토대를 갖추게 되였으며 알푸먹이를 전혀 쓰지 않고 해마다 새끼고기생산계획을 수행하면서도 많은 물고기를 대량적으로 길러 구역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이런 실례는 구역의 어느 공장, 기업소들에 가보아도 찾아볼수 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완전히 주저앉은것이나 다름없던 룡성건재공장이 오늘 구역건설에 필요한 강재와 세멘트, 벽돌을 자체로 짱짱 생산보장하면서 전망적으로 타일도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내달리고있는 현실은 구역책임일군들이 해당 단위 일군들을 실력가들로 키우며 그들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이다.

경험은 책임일군들이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조건타발이나 자재, 자금타산에 앞서 사람을 보며 능력있는 인재와 일군을 찾아내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을 힘껏 떠밀어줄 때 얼마든지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고있다.

무엇이 필요했는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앞채를 메고 뛰는 일군이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일군이다.

몇해전 구역상업관리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구역당책임일군은 현지에서 협의회를 열었다. 관리소일군들은 당책임일군의 요구에 이렇다할 방도를 내놓지 못하였다. 상업관리소가 가지고있던 얼마 안되는 원료기지마저 이관하였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있던 당책임일군이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관리소의 형편을 모르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무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것을 바라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그런데 인민생활을 책임진 우리 일군들이 조건타발을 앞세우며 이렇게 주저앉으면 구역인민들의 생활은 누가 추켜세우겠습니까. 문제는 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일군들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겠다는 각오와 신념이 투철하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절절한 호소는 관리소일군들을 각성시켰다.

협의회끝에 상업관리소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물질적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구역책임일군들은 매일이다싶이 현지에서 관리소일군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고 문제해결방도를 토의하였으며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러한 모습에서 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구역의 일군들은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살자면 어떻게 뛰고 또 뛰여야 하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끼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해나섰다. 구역산림경영소를 시적인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한 사업과 구역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돌보아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책임일군들은 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밤낮없이 뛰고 또 뛰였다.

책임일군들의 모습은 아래일군들의 일본새에 그대로 비끼는 법이다. 구역일군들이 한마음한뜻으로 애써 노력한 결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질적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에서는 나날이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상업관리소에 과자, 사탕, 음료생산공정이 그쯘하게 갖추어져 생산이 활성화되고 곳곳마다 꾸려놓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룡성식료품가공공장에 종합적인 식료품가공공정이 새로 꾸려져 활기를 띠기 시작한것은 물론 구역의 고려약공장과 일용품공장, 가내생산협동조합의 물질적토대가 보다 튼튼히 꾸려져 생산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룡성구역의 비약적인 현실은 일군들이 자기 단위 인민생활은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신발이 닳도록 뛸 때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진다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선군절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신문들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에서는 로작연구토론회가, 벨가리아에서는 업적토론회와 사진전시회가, 에꽈도르에서는 경축집회가, 도이췰란드에서는 경축집회와 도서전시회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성도서들,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의 기본내용을 해설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반제자주의 리념에 기초한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수놓아져있다.

김정일각하께서 선군령도의 실천속에서 선군혁명사상을 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서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 백승의 기치가 마련되게 되였다.

김정은각하의 로작은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 령도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강령적문헌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에 즈음하여 김정은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영웅적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벨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벨가리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8월 25일은 건군절과 함께 조선의 혁명무력건설사에서 중요한 리정표를 새긴 력사의 날이라고 언급하였다.

뜻깊은 선군절이 있어 조선의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하여온 조선의 선군혁명력사와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게 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련대성 에꽈도르 과란다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불패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여 사회주의운명을 구원하신 김정일각하의 업적을 세계 진보적인류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선군사상, 선군위업은 장구한 조선혁명의 실천속에서 검증된 필승불패의 진리이다.

조선의 선군사상, 선군위업은 백승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드팀없는 의지에 의하여 확고히 계승되고있다.

김정은원수께서 계시고 필승불패의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온갖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국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고히 틀어쥐시고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기에 조선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밀어낼수 있었으며 오늘은 핵보유국, 우주강국으로 될수 있었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졌을때에도 조선에서만은 사회주의기치, 선군의 기치가 변함없이 나붓기였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정의의 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함께 서있을것이다.

* *

선군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8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브레먀 뻬레본+TV》는 8월 25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군절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군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각하께서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1960년 8월 25일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제정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그이에 의하여 조선에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일심단결로 승리만을 떨쳐가는 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조선은 미국과의 끊임없는 대결에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여왔다고 하면서 정녕 그이는 선군의 위력으로 조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쳐오신 회세의 선군령장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하신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의 선군절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쿠웨이트신문 《알 샤히드》는 조선에서는 매해 선군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선군은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군대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켜나가는 조선의 정치를 말한다.

선군은 한치의 편차도 없는 사회주의의 길이며 자주와 존엄의 상징이다.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오늘 조선의 선군정치는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포크》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를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핵전쟁소동은 긴장격화의 근원

최근에 조선반도정세는 교전직전의 최극단상황에까지 치달아올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평화애호적노력에 의해 일촉즉발의 위기가 타개되였다.

이번 사태의 발생근원은 미국이 남조선과 결탁하여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있다.

결코 우리의 주장만이 아니다. 로씨야신문 《모스쯔스끼 쁨쏘몰레쯔》, 프랑스신문 《몽드》,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등과 우리 주변나라들의 조선문제전문가들이 그런 평을 내놓고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이번 긴장고조의 원인으로 된다는것, 조선해방 70돐을 계기로 북남관계완화의 좋은 기회가 마련될수 있었지만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등으로 장애가 조성되였다는것, 조선은 이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지면 긴장격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는것,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명칭을 단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들이 조선반도정세의 불안정을 야기시키고 북남관계완화를 저애한다는것 등에 대해 피력하였다.

세계언론들과 대조선문제전문가들의 분석들을 놓고보아도 벼랑끝까지 치달은 이번 교전직전의 위기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의해 조성되였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2014년, 2013년, 2012년 등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가며 살펴보아도 그에 대하여 확증할수 있다. 조선반도정세는 해마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극도로 긴장되군 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케트군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키도록 한 2013년의 최극단의 긴장상태조성원인도 다른데 있지 않았다. 바로 그 시기에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 최고존엄을 해치려고 작성한 작전계획까지 뻐젓이 공개하며 광란적으로 벌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있었다.

미국과 남조선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온 력사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년년이 격화시켜온 북침도발력사, 핵전쟁도발력사이다. 정전협정이라는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전쟁발발을 초래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지고있지만 남조선에서처럼 륙, 해, 공군 및 싸이버군무력과 민간인들까지 동원되여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곳은 없다. 그와 함께 합동군사연습의 전과정이 주권국가의 수도를 점령하고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작전계획에 따라 벌어지는 곳도 없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성격은 그것이 조선반도정세악화의 화근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는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최대로 격화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를 노린 전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미국의 패권주의, 지배권에 도전해나서는 대국들이 있다. 그 나라들을 제압하여야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부지하고 멸망의 나락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는 자기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때문에 미국은 저들의 전략적목적달성을 위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주기적으로 격화시키는 놀음을 배후에서 조작하고있다. 그것도 신통히 북과 남에서 통일기운이 높아가고 안정이 깃들만 할 때마다 핵전쟁소동을 일으키군 한다. 조선반도정세가 최악의 상태에로 빠져들면 그를 걸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한편 남조선에 방대한 첨단무장장비들을 팔아먹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여 전조선을 강점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여 지배하려는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어제도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제는 이 지구상에서 깨끗이 사라질 때까지 그 본성을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정세를 계속 긴장격화시키는 한 우리는 자위적핵억제력강화에 끊임없이 박차를 가할것이다.

리 경 수

《꾸바와 조선사이의 친선은 영원할것이다》

꾸바신문의 글

우리 나라와 꾸바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에 즈음하여 꾸바신문 《그란마》 8월 29일부가 《꾸바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은 영원할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꾸바인민과 조선인민사이의 친선과 형제적뉴대는 영원할것이다.

꾸바와 조선의 당과 정부와 인민은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을 커다란 기쁨과 긍지를 안고 맞이하고있다.

그것은 두 나라가 서로의 친선협조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자기 나라의 혁명을 수호하고 반제투쟁을 적극 추동해왔기때문이다.

꾸바인민과 조선인민은 혁명적원칙과 의리에 기초하여 호상지지, 협조하면서 형제적뉴대를 공고히 하여왔다.

또한 영웅적투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의해 산생된 온갖 도전과 난관을 극복해왔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까리브해위기때 꾸바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시였으며 꾸바주재 조선대사관 성원들과 류학생들이 형제적꾸바인민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는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언제나 사심없이 도와주었다.

조선인민은 반세기이상에 걸쳐 피델 까스뜨로동지와 라울 까스뜨로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꾸바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꾸바인민과 조선인민은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서로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자주는 조선통일의 담보》

베네수엘라신문 글 게재

베네수엘라신문 《베아》 8월 24일부가 《자주는 조선통일의 담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조선해방 70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주통일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 생활력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담은 기념보고서를 발표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은 조선민족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외세에 의하여 분렬을 강요당하였다.

따라서 자주는 통일의 담보로 된다.

외세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협력보다는 반목과 대결에서 더 리득을 보고있다.

남조선의 일방적인 《제도통일론》을 무력대고 지지하는 외세가 있는가 하면 북남사이에 합의되였던 통일방식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외세도 있다.

이러한 외세를 통일문제에 끌어들인다면 조선민족의 장래운명이 외세의 롱락물로 되고 외세들사이의 싸움의 희생물로 될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동시에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켜 자주통일을 순조롭게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현단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과업은 조선반도에서 당면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것이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두고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자주통일의지를 존중하는데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조선반도의 통일이 주변나라들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의 번영에 리익이 되도록 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발전의 70년력사와 오늘의 웰남

오늘은 웰남국경절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웰남인민은 자기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찾고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70년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웰남공산당의 령도밑에 간고한 투쟁을 벌려 마침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1945년 9월 2일 웰남민주공화국(당시)의 창건을 선포한것은 웰남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공화국이 창건된 후 웰남인민은 외래침략자들의 거듭되는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려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다. 그들은 미제가 일으킨 웰남전쟁시기 반미투쟁을 통해 남부웰남에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실현하였으며 1976년 7월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웰남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전쟁의 후과를 가시는것과 함께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왔다.

오늘 웰남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자신들이 선택한 사회주의를 국가건설의 총적목표로 삼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해 분투하고있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사회주의정권을 튼튼히 다지는것과 함께 경제발전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2011—2020년 경제 및 사회발전전략》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장성과 사회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웰남의 경제발전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웰남은 세계적인 천연고무생산국이다. 또한 손꼽히는 쌀생산국이기도 하다. 농업발전전략에 따라 웰남정부는 흰쌀을 주요수출품목으로 정하고 2020년까지 해마다 4 100만t의 흰쌀을 생산할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농업발전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농업생산량을 더욱 높이도록 하고있다.

민족경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웰남이 특별히 힘을 넣는 사업이다. 세계경제의 편파와 파동이 심하고 지배주의세력의 경제적침투가 보다 로골화되고있는 속에서 국내시장에서 국산품의 비중을 높이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나라의 빈궁률을 줄이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는것, 공업현대화를 추진하고 그 요구에 맞게 교육을 발전시키는것 등이 최근년간 이 나라가 내세우고있는 주요전략으로 되고있다.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

웰남인민에게 있어서 지나온 력사적로정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 전쟁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간고한 투쟁과정이였다. 실생활체험을 통해 군력강화가 나라의 자주권수호의 근본담보로 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웰남인민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자주권수호와 나라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는것과 함께 웰남인민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지지성원하고 협조해온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소중히 여기고있으며 웰남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혁

테로분자들의 문화유산파괴행위 비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8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테로분자들의 문화유산파괴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테로분자들이 수리아중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발루샤민신전을 폭파해버린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수리아인민의 력사와 민족성을 빼앗는 전범죄로 락인단죄하였다.

성명은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수리아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문화유산보존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 규탄

요르단 공보체신담당 국무상이 8월 26일 팔레스티나의 동부꾸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서 감행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이슬람교도들의 사원출입을 금지하고 이스라엘인들의 출입만을 허용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용납할수 없는 불법무도한 탄압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요르단정부가 알 아크사사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슬람교도들의 사원출입금지조치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란과의 방위협조필요성 강조

로씨야의 군사전문가가 최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로씨야와 이란사이의 기술 및 방위협조관계가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로씨야와 이란은 까스삐해지역과 전략적인 중동지역을 포함하여 두 나라 령토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완충지대의 안전을 담보하고 린접국가들에 대한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을 막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있다고 밝혔다.

외세의 간섭이 없는 까스삐해의 안전이 협조관계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짐바브웨에서 심각해질 식량부족현상

짐바브웨에서 최근 식량부족현상이 심각해질것으로 예견되고있다.

8월 25일 세계식량계획은 이 나라에서 지속되고있는 가물로 올해 강냉이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이상이나 줄어들어 약 150만명의 주민들이 식량위기에 처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일본의 침략무력증강책동

일본이 침략무력증강을 위해 새로운 함선들을 건조, 배비하는데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8월 27일 요꼬하마시의 한 조선소에서 해상《자위대》의 신형직승기탑재호위함 《가가》호를 진수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9대의 직승기가 동시에 리착륙할수 있는 이 함선은 함수에서 함미까지 모두 갑판으로 되여있는 항공모함형구조로 되여있다고 한다. 함선은 2017년 3월에 취역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여 시위

몸서리치는 조선인학살만행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것이다

지금으로부터 92년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의 간또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은 가정들에서 점심준비를 위해 곤로에 불을 지펴놓은 시간에 일어난것으로 하여 당시 대부분 목조건물이였던 살림집들이 무너지면서 불이 당겨 순식간에 대화재로 번져졌다.

이날의 지진과 화재로 말미암아 120여만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으며 20여만명이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죽고 불타죽었다.

지진에 의하여 도꾜는 물론 가까운 항구도시들인 요꼬하마와 요꼬스까도 거의다 파괴되고 불타버렸으며 그밖의 여러 도시들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 철도와 전신전화선로들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들도 파괴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사상자들과 리재민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민심이 소란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게 되자 일제는 그들의 반정부적감정을 딴데로 돌려 지진으로 조성된 심각한 사회정치적위기를 모면해보려 하였다. 그로부터 재해지역 주민들의 극도에 이른 불안과 공포,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을 희생물로 삼을 간악한 흉계를 꾸미였다.

왜왕의 《칙령》 401호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무시무시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각 지방장관들에게 조선사람들을 철저히 탄압할데 대한 공식지령을 내려보냈다. 또한 일본신문들이 《조선인이 방화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 《조선인이 강도질을 한다.》는 무근거한 류언비어들을 련일 보도하게 함으로써 온 일본땅에 조선사람에 대한 증오의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조선인폭동설》을 날조한 일제는 무고한 재일조선인들을 허무니없이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할데 대한 계엄령까지 내리였다.

일본반동정부의 직접적인 관여하에 가장 악질적인 장교들로 《간또계엄사령부》가 조직되고 수만명에 달하는 군대와 경찰무력이 그 일대에 집결되였으며 불량배들로 조직된 《자경단》 등이 그들과 협동한것으로 하여 지역의 정세는 어마어마한 전시상태를 방불케 하였다.

원래 민족배타주의가 몸에 푹 배인 일제살인귀들은 조선사람들을 보거나 잡는족족 쏴죽이고 찔러죽이고 불태워죽이거나 물에 던져 죽였으며 조선사람들의 팔다리를 톱으로 켜고 식칼로 눈을 도려내는 등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피에 주린 악당들은 《오래간만에 법이 허락하는 사람잡이이니 흥이 난다.》라고 지껄이면서 패락에 들며 길목마다 검문소를 만들어놓고는 우리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들어하는 까다로운 일본말을 시켜보면서 조선사람을 모조리 골라내여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죽이였다. 일본사람들자체가 처참하게 죽은 조선사람들의 시체를 보고는 이때처럼 수치감을 절감하기는 처음이였다고 증언한것만 놓고보아도 당시의 스산한 살인광경을 짐작할수 있다.

조선사람들이 당하는 끔찍한 참상들을 보다 못해 도꾜에 있는 각국 대사와 공사들은 야만국인 일본을 상대로 외교를 계속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외무성에 련명으로 항의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간또계엄사령부》의 사촉하에 피에 주린 이리떼로 화한 일제군경들과 《자경단》놈들은 조선사람잡이에 피눈이 되여 돌아치면서 장총, 일본도, 단도, 참대창, 곤봉, 쇠갈구리 등 각종 살인흉기들을 휘둘러 단 며칠동안에 무려 2만 3 000여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참혹하게 학살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학살만행은 단순히 재해로 인하여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정부에로 쏠리는 불만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 몇몇 고위인물들의 계략에 따라 꾸며지고 감행된 개별적인 테로행위가 아니다.

당시 일제가 노린 목적은 일본인들속에 조선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어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합리화,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침략에 유리한 사회정치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조선인학살만행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최고통치자의 지시하에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작강행된 몸서리치는 살륙만행이였다.

인류력사를 돌이켜볼 때 전쟁이나 분쟁지역에서 무장집단에 의한 대학살이 감행된것은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지만 일본에서와 같이 자연재해까지 타민족말살의 기회로 악용하여 군대와 경찰, 주민들을 집단적인 대학살에로 내몬 례는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간또대지진때의 조선인학살만행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그 책임을 《자경단》과 같은 민간단체들에 넘겨씌우고있으며 조선사람들에게 감행한 모든것을 부정하고 외곡하여 중학생들의 교과서에 반영하는 놀음까지 벌려놓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력사외곡에 그처럼 집요하게 매달리는것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외곡된 력사를 주입시킴으로써 그들을 군국주의광신자들로 키워내여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내몰아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자는데 있다.

또한 일본이 《정의의 위업》을 수행해왔기때문에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국가적배상을 할 필요도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자는것도 일본이 노리는 목적의 하나이다.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그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반인륜적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정치도덕적문제이며 국제법적문제이다. 이를 외면하고 아직까지도 과거청산을 회피하고있는 일본의 처사는 초보적인 도리조차 지킬줄 모르는 도덕적저렬성을 세계앞에 더욱 드러내놓는 결과만을 빚어낼뿐이다.

일본은 지난날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세계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서야 한다.

김 국 철

나토군병사 즉사

아프가니스탄에서 외세의 강점과 지배를 반대하는 항쟁세력의 공격작전이 계속되고있다.

8월 26일 헬만드주에서 나토군병사 2명이 《반테로전》에 돌아치던 도중 항쟁세력의 공격에 걸려들어 즉사하였다 한다.

메르스에 의한 사망자 증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증대되고있다.

이 나라 보건성은 8월 25일 리야드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여 앓고있던 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2년이래 지금까지 이 전염병에 의한 전국적인 사망자수는 498명으로 늘어났다.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흡연피해

스위스에서 흡연의 후과로 해마다 9 000명이상이 목숨을 잃고있다. 8월 25일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혔다.

대풍피해

일본의 규슈섬에서 8월 25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태풍으로 20명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47만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탈리던 자동차들이 전복되고 렬차 및 비행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조선중앙통신】

ㄱ-51138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